

고등학생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in High School Students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석사 정미연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정옥분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

Master : Chung, Mi Ye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 Chung, Ock B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are-oriented morality and justice-oriented morality with gender and sex-role identity in high school students. Care-oriented morality was assessed by Modified Care-based Morality Measure based on Gilligan's(1982) theory. Justice-oriented morality was assessed by the Korean Defining Issues Test(DIT). Sex role identity was assessed by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7 females and 143 males, the age of 17 to 19 years old.

The average level of care-oriented morality of the subjects was on level 1.5(transition from survival to responsibility) and the P score(post conventional level) of justice-oriented morality was pretty hig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emales and males in the levels of care-oriented morality as well as justice-oriented mora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 role identity types by level of care-oriented moralit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x role identity types by level of justice-oriented morality.

주제어(Key Words): 정의지향적 도덕성(justice-oriented morality), 배려지향적 도덕성(care-oriented morality), 성역할 정체감(sex role identity)

I. 서론

우리 사회는 지난 20세기의 산업화·서구화 속에서 정신보다는 물질을 중시하였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상실로 이어져 오늘날 패륜과 청소년 가출 및 범죄의 증가 등을 초래하였다. 정보화로 인해 가치관과 문화가 급속히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타인을 배려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규범과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성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

도덕성에 관한 연구는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의 접근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중 도덕성 발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지발달이론에 대한 연구는 Piaget와 Kohlberg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지발달이론의 도덕성은 서양의 가치체계인 합리성, 공정성, 정의 등으로 개념화되었고, 가치체계들이 남성위주에 입각했다는 점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정규와 박찬주, 1991).

또한 Kohlberg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지난 20여년 동안 도덕성 발달에서 성차에 대한 논란을 제기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로 Gilligan(1982)은 Kohlberg의 정의지향적 도덕성은 권리, 공정성, 독립성과 같은 남성적 특성과 경향을 강조하여 여성에게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도덕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Gilligan(1982)은 남성과 여성은 도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지향을 한다고 밝혔다. 남성은 정의지향적 사고를 하며, 여성은 책임과 배려지향적 사고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들은 정의지향적 도덕성과는 대조적으로 인간관계, 책임과 의무, 타인에 대한 배려, 관심, 동정심 등의 배려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이다(박병춘, 1995).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의지향적 추론과 배려지향적 추론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Gilligan & Attanucci, 1988; Johnston, 1988; Pratt, Golding, Hunter, & Sampson, 1988)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Ford & Lowery, 1986; Friedman, Robinson, & Friedman, 1987; Walker, 1989)도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Skoe &

Diessner, 1994; Skoe & Gooden, 1993; Söchting et al., 1994)은 배려지향의 도덕성 수준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우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Gilligan(1982, 1988)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연구(곽경화와 정옥분, 2000)에서는 Gilligan의 이론을 바탕으로 배려지향의 도덕성과 성차 및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이 남성의 도덕성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한 자기 희생적인 수준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성인들과 달리 서구화된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성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Gilligan과 Attanucci(1988)는 정의와 배려간의 갈등은 청소년기에 더욱 흔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인간관계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므로 배려지향적 판단이 정의지향적 판단보다 선행할 가능성이 있다(송명자, 1994). 따라서 Gilligan(1982, 1988)은 청소년기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연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Eisenberg, Lennon, & Roth, 1983; Lyons, 1983; Skoe & Gooden, 1993). 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배려지향적 도덕 추론을 하지만, 여학생이 보다 타인관계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형성·발달하는 시기이며 또래 집단에 의해 정의와 배려간의 갈등적 상황을 빈번히 경험하게 되므로 인간관계 내에서 이해되는 도덕성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또래간의 맹목적인 배려는 공정성과 정의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비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배려지향의 도덕성과 정의지향의 도덕성 중에서 보다 중요한 도덕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두 도덕성이 서로 조화롭게 통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측정하고, 실생활에서 경험한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구체적인 상황과 관

련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도덕문제를 다루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성차보다 성역할 정체감에서 보다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Söchting, Skoe, & Marcia, 1994)를 고려할 때, 청소년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성역할 정체감 형성은 도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성역할 정체감은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발달과업 중 하나로 각 개인의 외현적 행동, 정서적 반응, 내면적 생활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Mussen, 1969). 성역할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또는 여자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일련의 특성을 말한다. 그러나 한 개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발달될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양성성이 바람직하다고 한다(Bem, 1974). 따라서 양성적 정체감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Skoe & Diessner, 1994; Skoe & Marcia, 1991; Söchting, 1991; Söchting, Skoe, & Marcia, 1994)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국내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과 도덕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김선영(1987)과 이나현(1997)의 연구에서는 Kohlberg의 정의지향의 도덕성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광경화와 정옥분(2000)의 연구에서는 배려지향의 도덕성과 성역할 정체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우리 나라 고등학생에게 나타나는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성별에 따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3.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

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3개 일반 고등학교 1학년~3학년 남녀 학생 총 300명이었다.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 내에서 배려와 정의간의 갈등 상황을 빈번히 경험하므로, 현대 사회에서 배려지향적 도덕성 연구는 성인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까지 포함하여 발달적 변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학생용 질문지와 남학생용 질문지를 각각 180부씩 배부하였으며, 회수율은 100%였다. 총 회수된 자료 360부 중에서 불성실하거나 기재가 미흡한 자료 60부를 제외하고, 총 300부가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남학생은 143명(47.7%)이었으며, 여학생은 157명(52.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2명(24%), 2학년 100명(33.3%), 3학년 128명(42.7%)이었다.

2. 측정도구

1) 배려지향적 도덕성 측정도구

고등학생들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이 질문지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하였다. 첫째, 고등학생 50명과 일대일 면접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면접내용을 토대로 질문지 내용을 구성한 후, 인간발달 전공자에게 안면 타당도를 구했다. 셋째, 작성된 질문지로 20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일대일 면접 및 자기 보고 방식을 함께 실시하였다. 넷째, 면접 및 작성된 내용의 일관성을 토대로 측정 기준을 보완하였다.

예비조사를 하게 된 목적은 Gilligan(1982)의 이론을 근거로 Skoe(1987)에 의해 제작된 ECI(Ethic of Care Interview)는 16세, 17세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

여 ECI를 사용하였으나, 우리 나라 17세, 18세, 19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CI를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CI의 내용은 3가지 가상적 갈등 상황(혼외 임신에 따른 임신 중절의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결혼 생활과 이혼의 문제, 부모 부양에 관한 효의 문제)과 실제 경험한 갈등 상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 갈등 상황들이 서구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망이나 경험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조사를 통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상적 갈등사례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대표성을 고려하여 강북과 강남에 위치한 11개의 일반학교와 상업학교로 총 12개 학교의 재학생 50명을 선정하였다. 총 50명 중 여학생은 30명(60%) 남학생은 20명(40%)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18세였다. 면접은 1인당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예비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 자신이 경험한 갈등 상황으로는, 이성교제에 관한 갈등, 이성친구

와 동성친구와의 삼각관계에 관한 갈등, 걸인 돕기, 자리양보, 또래들과의 갈등, 지갑을 우연히 주웠을 때의 갈등내용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연령의 가상적 갈등 상황으로는, 동성친구의 이성친구를 사랑하는 경우, 이성문제, 삼각관계에 관한 갈등 내용이 적합하다는 내용이 28명(56%), 10대 임신이야기에 관한 갈등 내용이 10명(20%), 성관계에 관한 갈등 내용이 6명(12%), 부모와의 갈등 내용이 6명(12%), 집단따돌림에 관한 갈등 내용이 4명(8%), 기타 성적, 진로 결정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대상자가 실생활에서 경험한 도덕적 갈등 상황을 기록하는 것과 세 개의 가상적 갈등사례로 질문지가 제작되었다. 도덕적 갈등 상황은 각 갈등 상황의 주인공이 남성이면 남학생용, 여성이면 여학생용으로 구분된다. 가상적 갈등사례들은 첫째, 동성 친구의 이성친구를 사랑하는 문제(사랑과 우정과 갈등), 둘째, 아버지와의 갈등과 가출문제(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욕구와의 갈등), 셋째, 이성친구와의 성관계로 빚어진 임신문제(출산과 낙태의 갈등)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갈등

<표 1> 배려지향적 도덕성 단계 분류

배려지향적 도덕성단계	사랑과 우정의 갈등 상황	가족문제와 자신과의 갈등 상황	출산과 낙태의 갈등 상황
제 1수준	자신의 입장과 감정만 생각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나 관심 없음	가족원들이 자신의 성장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며 책임감 없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없음
제 1.5수준	동성친구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이 나타나지만 자신의 감정을 더 중시함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적 욕구가 나타나지만 동생을 보살피려는 책임감이 나타남	이성친구나 부모님께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한 이기적인 입장 나타남
제 2수준	동성친구가 마음에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감정을 포기함	아버지와 동생을 보살피야 한다는 책임감과 희생심이 강하게 나타남	이성친구와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강하게 제시함
제 2.5수준	무조건적인 희생에서 벗어나 선택권을 이성친구에게 부여함. 친구의 입장과 상실감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관점과 욕구도 나타남	무조건적인 희생이 옳은것인가를 제기하며 가족원과의 관계 인식을 재조명함. 상황을 극복하려는 방안들을 제시함	의사 결정에 부모님과 이성친구가 함께 고려됨. 여자 친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됨. 자신의 내면의 기준보다는 타인의 결정에 의존함
제 3수준	세 사람 모두를 역동성있게 고려하면서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 균형을 이룸	장기적인 인식으로 최선의 방안을 고려함.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이 나타나지만 자신에 대한 배려도 함께 나타남	낙태와 출산에 대한 단순한 결정이 아닌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 자신도 보살핌의 대상에 포함하며 이기심과 책임감에 화합을 이룸

사례들을 배려지향적 도덕성 단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측정기준분류에 따라 단계점수(1, 1.5, 2, 2.5, 3수준)를 주었다. 총 점수는 네 개 갈등 상황 점수를 평균한 것이며, 중간점수인 경우(1.25, 1.75)는 선행 연구(Skoe & Diessner, 1994; Söchting, 1994)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즉 총 점수가 1.25이하이면 1수준, 총 점수가 1.25와 1.75사이에 있거나 1.75와 같으면 1.5수준, 총 점수가 1.75와 2.25사이에 있거나 2.25와 같으면 2수준, 총 점수가 2.25와 2.75사이에 있거나 2.75와 같으면 2.5수준, 총 점수가 2.75위의 점수는 3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분류한 후에, 분석 결과를 놓고 Cronbach's α 와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3$ 이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Cohen's kappa = .74~.96였다.

2) 정의지향적 도덕성 측정도구

고등학생들의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용린(1986)이 제작한 한국판 DIT(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DIT는 원본의 검사도구 6개 문제 상황 이야기 중 남편의 고민(아내의 치료약을 훔칠 것인가의 갈등), 탈옥수(양심적인 사업가가 탈옥수임을 알았을 때 고발하는가의 갈등), 의사와 환자(시한부환자의 안락사요구에 따른 의사의 갈등) 3개를 선택·번역한 것으로 간편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36개의 진술문항에 대한 피험자의 평정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의 하나를 나타내며, 그 개인 점수는 P(%)점수와 D점수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는 P(%)점수이며, 이 지수는 피험자의 도덕판단 중에서 5, 6단계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므로, P(%)점수가 높을수록 피험자의 도덕판단 수준이 높은 단계임을 알 수 있다. 한국판 DIT에 대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P(%)점수 .47, D점수는 .53으로 모두 유의하였으며, 내적 일치도 지수는 P(%)점수는 .64로 D점수는 .69로 나타났다(박찬주, 1990).

여러 각도에서 DIT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광범한 연구(김정규와 박찬주, 1991; 문미희, 1990)가 행해졌으며, DIT는 청년기의 후인습적 수준과 인습적 수준을 구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 성역할 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 : 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60문항으로 남성성을 나타내는 20문항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20문항 그리고 긍정성을 나타내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7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얼마나 자신을 잘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7점)까지 답하게 되어 있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구분을 위해서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를 고려하여 Spence, Helmreich와 Stapp(1975)이 고안한 중앙치 분리법(Median Split Procedure)을 사용하여 전체 응답자 집단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들의 중앙치를 준거로 네 집단으로 분류한다. 각 연구대상자의 남성성 문항의 총 점수를 산출하여 구한 중앙치($M=84.68$)와 여성성 문항의 총 점수를 산출하여 구한 중앙치($M=86.26$)를 기준으로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 보다 높으면 양성적 정체감,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으면 남성적 정체감,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으면 여성적 정체감, 두 점수가 모두 중앙치 보다 낮으면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0$ 였고, 여성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7$, 긍정성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7$ 였다.

3. 연구절차

제 1차 예비조사는 2000년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고등학생들과의 면접에서 얻은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배려지향적 가

상적 갈등 상황에 대해 아동학 전공과 심리학 전공 교수 각 1인과 아동학 전공과 심리학 전공 박사들에게 안면타당도와 질문내용을 검토받았다. 제 2차 예비조사는 2000년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제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수정한 검사 도구를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3학년 30명에게 실시하여, 학생들의 응답이 편중되는지의 여부와 측정 기준이 적합한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본 조사를 실시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재검토하였다.

본조사는 2000년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질문지 구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50분이 소요되었다. 작성된 질문지를 두 평정자가 함께 보면서, 측정 기준에 해당되는 도덕성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질문지는 두 평정자가 함께 토의를 통하여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분류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중앙치 반분법을 이용하여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성역할 정체감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와 Cohen's kappa를 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 중다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 처리는 SPSS Win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배려지향적 도덕성

1)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각 수준에 따른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2>과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제 15 수준(49.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제 2 수준(44.0%), 제 1 수준(5.7%) 순이며, 제 25 수준(0.7%)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수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제 1 수준과 제 2 수준에서 남·녀의 차이가 현격히 나타나며, 제 2 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2) 배려지향적 도덕성 단계 분류

(1) 제 1 수준 : 자기 중심적 단계

이 단계에서는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특징이다. 각 개인의 관심은 실질적이며, 욕구와 의무·책임을 구분하지 못한다. 도덕적 갈등은 자기 자신의 욕구들이 갈등에 놓일 때 나타나며, 어떠한 욕구를 먼저 충족할 것인가를 고심한다. 따라

<표 2>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별¹⁾ 빈도

배려 지향 도덕성 수준	성 별		전 체 n(%)
	남 n(%)	여 n(%)	
제 1 수준	11(3.7)	6(2.0)	17(5.7)
제 15 수준	88(29.3)	61(20.3)	149(49.7)
제 2 수준	44(14.7)	88(29.3)	132(44.0)
제 25 수준	0(0.0)	2(0.7)	2(0.7)
제 3 수준	0(0.0)	0(0.0)	0(0.0)
전 체	143(47.7)	157(52.3)	300(100)

1) 제 1수준(자기 중심적 단계), 제 15수준(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의 변화), 제 2수준(책임감과 자기 희생의 단계), 제 25수준(선행에서 관계에 대한 진실성의 변화), 제 3수준(배려의 윤리)

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거의 고려하지 않으며, 윤리적 원칙이나 보편적 가치 기준이 없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예를 들면, '부정행위를 할 것인가?', '학원을 가지 않을 것인가?', '돈을 훔칠 것인가?', '술을 마실 것인가?' 등과 같이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갈등 상황을 제시한다. 도덕적인 갈등을 어려움 없이 판단하며, 판단기준이 매우 실질적이다. 의사결정이나 판단 기준이 제 1수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버스를 탔는데 한 좌석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다음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타셨다. 그리고 내 앞에 서 계셨다. 순간 난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몰랐다. 나도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처지에서 남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었다.

② 동성친구의 이성친구를 사랑하는 문제 :

사랑과 우정과의 갈등 상황

PC통신을 통해 한 여(남)학생에게 끝낸 기찻(민선)이는 차츰 만남을 가지며 발전된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 여(남)학생이 자신의 친한 친구 민수(영주)의 여자(남자)친구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제 1수준에서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 배려나 관심이 없다. 책임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과 감정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냥 몰래 계속 만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에게 돌려서 민수와 헤어지도록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냥 포기한다는 건 바보같은 일이다.

③ 아버지와의 갈등과 가출 문제 : 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욕구와의 갈등 상황

철민(희선)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어린 여동생을 돌보며 학교를 다닌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철민(희선)이와 어린 동생에게 야단만 치신다. 이런 생활이 견디기 힘든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집을 나와서

살 것인지에 갈등한다.

제 1수준에서는 갈등 없이 가출을 선택하고 그 이유로서는 아버지나 여동생이 자신의 발전, 성장에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한다. 자신을 위해서 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생과 아버지에게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집을 나와서 살아야 한다. 자기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부모나 형제는 같이 살아봤자 힘만 들기 때문이다.

④ 이성친구와의 성 관계로 빚어진 임신문제 :

출산과 낙태의 갈등 상황

민우(수희)는 부모님과 대화를 잘 나누고 학교생활에서도 착실한 고3학생이다. 민우(수희)에게는 깊은 관계까지 발전된 여자(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녀(자신)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 1수준에서는 갈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실질적이고 이기적이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다. '아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니까' 등과 같은 이유로 갈등 없이 단순히 낙태를 결정한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낙태한다. 이것은 수희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걸림돌이 생겼으면 걷어차고 살아야 한다. 수희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한 아이를 위해 살아간다면 비참한 일이다.

(2) 제 1.5 수준 : 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의 변화

타인에 대한 애착과 연계성이 나타나면서 이기심과 책임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을 이기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존이 삶의 목적이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울고 그룹에 대한 원칙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 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자신의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 여전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함께 잘 놀던 친구를 아이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따돌리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심지어는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계속 그 친구와 같이 놀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그 친구를 따돌려야 할 것인가? 에서 갈등을 했다. 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 친구와 놀지 않았다.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② 동성친구의 이성친구를 사랑하는 문제 :

사랑과 우정과의 갈등 상황

동성친구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이 서서히 나타난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나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민선은 그 남학생에게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남학생에게 선택하라고 할 것이다. 나는 우정보다 사랑이 더 앞선다. 영주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③ 아버지와의 갈등과 가출 문제 : 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욕구와의 갈등 상황

독립의 욕구가 강하지만 동생을 보살피야 한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의 상황이라면 참고 살라고 하겠지만 내가 이와 같은 입장이면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온다. 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생까지 남아서 고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나오겠다.

④ 이성친구와의 성 관계로 빚어진 임신문제 :

출산과 낙태의 갈등 상황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낙태나 입양 등의 선택을 먼저 제시한다. 이성친구와 부모님께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아이의 생명과 미래에 대한 배려심 보다는 자신

의 미래를 위한 이기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남자친구에게 말할 것이고, 남자친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이가 어리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수술을 받고 남자친구와 돌아서만 그 사실을 알고 싶다.

(3) 제 2 수준 : 책임감과 자기 희생의 단계

이 관점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며, 모성애나 부성애적인 책임감을 매우 강조한다. 선행이란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보살핌이나 배려적 행동을 의미한다. 개인은 사회적 가치를 채택하고, 인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행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도덕적 갈등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두려움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관점이나 감정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잠이 부족해서 몸이 너무 피곤할 때 버스 좌석에서 할머니를 보았을 때,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었는데 할머니가 내 앞으로 오셨다. 일어날까? 자리에 그냥 있을까? 갈등을 했다. 졸리고 피곤했지만, 노약자인 할머니를 무시하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서 할머니께 양보를 했다.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셔서 뿌듯했다.

② 동성친구의 이성친구를 사랑하는 문제 :

사랑과 우정과의 갈등 상황

자신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다. 동성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가 민수라는 아이의 상황이 된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기절이라면 여자친구를 빼앗지 않고 포기하겠다. 친구니까 가장 친한 친구를 남도 아닌 내가 상처받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③ 아버지와 의 갈등과 가족 문제 : 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욕구와의 갈등 상황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어린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하지 않는 것이 선행이라고 규정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린 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과 희생심이 강하게 나타난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사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편하자고 나가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선이 집을 나간 경우 어린 여동생 혼자 집에 남아있게 된다. 어린 여동생이 겪을 고생을 생각한다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

④ 이성친구와의 성 관계로 빚어진 임신문제 : 출산과 낙태의 갈등 상황

관습이나 종교적 이유로 무조건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친구와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시한다. 제 2수준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존엄성을 강하게 제시한다. 생명을 위해 회생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절대로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 한 생명을 지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비난의 시선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을 참고 아기를 낳는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남자친구와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남자친구와 함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 2.5 수준 : 선행에서 관계에 대한 진실성의 변화

변화는 자기 자신의 회생을 통하여 타인을 보호하려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고, 자아와 타인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진행된다. 이것은 자기 회생과 인습에 내재된 보살핌 사이에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된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이기심과 책임감 또는 도덕성과 생존에 관련된

갈등 상황을 제시한다. 부분적으로 타인에 대한 헌신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전의 단계보다 유동적이고 사려깊고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고민한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3학년때 나와 매우 친했던 친구가 많이 다쳤는데, 조그만 병원에서 여분 혈액도 없었고,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나뿐이었다. 내 나이는 아직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고 친한 친구는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병원에서 내가 어리다고 헌혈을 못하게 했다. 법적으로 나는 헌혈을 해서는 안되는 나이였고 하나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다. 양쪽의 선택에는 법과 생명, 혹은 우정이라는 가치가 대립하고 있었다. 다급한 상황이므로 나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언니를 설득해서 헌혈을 했다. 피를 뽑은 뒤 나는 아무 이상 없이 괜찮았다. 결국 친구는 죽었지만 나는 그 친구에게 무언가 해주었다는 것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

② 동성친구의 이성친구를 사랑하는 문제 : 사랑과 우정과 의 갈등 상황

무조건적인 회생으로 이성친구를 포기한다는 입장(제 2 수준)에서 벗어나며, 선택권을 이성친구에게 부여한다. 친구가 받을 상실감과 우정을 우려하지만, 자신의 관점과 욕구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에게 영주와의 사이를 확인하고 남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남자의 의견을 참고로 결정한다. 만약 자신을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영주에게 사실을 말하고 이해를 구한다. 그 남학생이 영주보다 민선이를 더 사랑할 수도 있는데 영주와 사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헤어질 수 없다. 물론 영주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이와 같은 상태에서 계속 사귀는 것도 나쁜 결과가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남학생의 결정과 생각이 중요한 것 같다.

③ 아버지와 의 갈등과 가족 문제 : 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욕구와의 갈등 상황

무조건적인 회생으로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논리를 제기하고 동생과 아버지와 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명한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술주정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때리지 않고 욕도 심하게 하지 않고 폭행도 않는 상황이면 아버지도 힘들어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 다정하게 대해주며 진정한 대화를 시도해서 현실에 눈을 뜨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그때는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야 한다. 계속 함께 있다면 회선이든 점점 지칠 것이고 동생과 함께 사고와 성격형성이 나쁠 수 있다.

④ 이성친구와의 성 관계로 빚어진 임신문제 :

출산과 낙태의 갈등 상황

의사 결정에 부모님과 이성친구가 함께 고려되지만 자신의 내면의 기준에 의한 결정보다는 타인의 결정에 의존적이다. 의사결정 시 여자친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생명의 소중함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고찰해 보면서 자신을 보살피고자 하는 욕구가 제기된다. 해당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낙태를 한다.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을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과연 남자친구가 수희와 아기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책임진다고 해도 아직 사회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수희와 남자친구의 앞날을 위해서 낙태를 해야 한다. 아기한테는 무척이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태로 태어나는 아기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

(5) 제 3수준 : 배려의 윤리

이 수준에서는 판단에 대한 기준이 선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변한다. 도덕적 판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실제 의도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사회적 인습에 제한 받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한 결정을 책임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관계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며,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제 3수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기준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실생활에서 경험한 갈등 상황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의견보다

는 자신 내부의 자신이 선택한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의사결정이나 판단 기준이 배려의 윤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동성친구의 이성친구를 사랑하는 문제 :

사랑과 우정과의 갈등 상황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이성친구에 대한 감정과 동성친구와의 우정 사이에서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주요 관점은 세 사람 모두를 역동성 있게 고려하는 것이다. 이기심과 책임감 사이에 균형을 이룬다.

③ 아버지와의 갈등과 기출문제 : 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욕구와의 갈등 상황

단순히 집을 나간다(제 1 수준)와 무조건 참고 견딘다(제 2 수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생과 아버지에 대해 장기적인 인식으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고려한다.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과 보살핌을 인식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배려도 나타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④ 이성친구와의 성 관계로 빚어진 임신문제 :

출산과 낙태의 갈등 상황

낙태와 출산에 대한 단순한 결정에서 벗어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 제 2수준에서는 아이만을 고려하거나 임신중절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으나 제 3수준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도 함께 결합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신도 보살핌의 대상에 포함되며, 이기심과 책임감의 개념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진다.

2. 정의지향적 도덕성

1)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

Kohlberg는 청소년기에는 도덕적으로 성숙하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부터 사회적인 관점으로, 사회적인 관점에서부터 보편적인 관점으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의 도덕적 관점을 각각

〈표 3〉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별 빈도²⁾

P(%) 점수집단	성 별		전 체 n(%)
	남 n(%)	여 n(%)	
27이하(下)	48(16.0)	29(9.7)	77(25.7)
28~41(中)	51(17.0)	40(13.3)	91(30.3)
42이상(上)	44(14.7)	88(29.37)	132(44.0)
전 체	143(47.7)	157(52.3)	300(100)

전인습적, 인습적, 후인습적으로 명명하였다. 각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어져 모두 6단계로 구분되는 Kohlberg의 도덕판단 검사에 관해 Rest(1979)는 검사시행과 채점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객관식 표준화 검사로 전환시킨 DIT를 제작하였다. Rest(1979)는 도덕성 수준을 어느 특정한 한 단계로 나타내지 않고, 후인습적 수준의 비율을 의미하는 P(%)점수나 D점수로 도덕성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후인습적 수준인 5A, 5B, 6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있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각 수준에 따른 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3〉와 같다.

P(%)는 도덕 발달 단계 중 후인습적 수준인 5A(사회계약적 사고), 5B(개인의 권리 중시) 및 단계 6(보편적 윤리 원칙)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위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P(%)점수는 42점 이상(4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8~41점(30.3%) 사이이며, 27이하(25.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에서는 42점 이상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3. 성별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성별에 따른 도덕 판단 지향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에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평균은 남학생 1.62, 여학생 1.77로 나타났는데 분류 기준 점수에서 볼 때 남학생은 평균적으로 제 1.5 수준에 가깝고 여학생은 제 2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평균은 남학생 35.62, 여학생 42.6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두 도덕성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 수준별 빈도를 산출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적 정체감을 가진 남학생은 제 1.5 수준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많이 나타내었고, 여성적 정체감 집단의 여학생은 제 2 수준의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다.

2) 300명의 0~80까지의 P(%)점수를 평균치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함

〈표 4〉 성별에 따른 도덕 판단 지향성

	남(n=143)		여(n=157)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	1.62	.28	1.77	.29	-4.687 *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	35.62	13.91	42.65	15.16	-4.174 *

* p<.05

〈표 5〉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별 빈도

배려 지향 도덕성 수준	성역할 정체감								전 체
	남(n=143)				여(n=157)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제 1 수준	3	7	0	1	0	1	2	3	17
제 1.5 수준	20	41	4	23	15	3	26	17	149
제 2 수준	10	20	0	14	23	5	42	18	132
제 2.5 수준	0	0	0	0	0	1	1	0	2
제 3 수준	0	0	0	0	0	0	0	0	0
계	33	68	4	38	38	10	71	38	300

〈표 6〉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원변량분석³⁾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984	3	.328	3.67*
집단내	26.465	296	8.941E-02	
전체	27.449	299		

* p<.05

〈표 7〉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 사후 검증

성역할 정체감(평균)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양성적 (1.69)				
남성적 (1.65)			*	
여성적 (1.73)		*		
미분화 (1.70)				

* p<.0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67, p<.05$). 따라서 어떠한 성역할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성적 정체감과 남성적 정체감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성적 정체감 집단 내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남성적 정체감 집단 내의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낮은 평균을 나타내어 평균차이를 볼 수 있었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도덕성 수준별 빈도를 산출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8〉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적 정체감을 가진 남학생은 P(%)점수 상, 중, 하집단 모두에서 거의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었다. 여성적 정체감을 가진 여학생은 42이상(上)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P(%)점수 집단(상,

3)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을 두 개의 독립변수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유의하게 나온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매우 드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을 분리해서 두 개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8>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 점수 빈도

P(%) 점수 집단	성역할 정체감								전 체
	남(n=143)				여(n=157)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양성적	남성적	여성적	미분화	
27이하(下)	10	21	1	16	4	3	16	6	77
28~41(中)	14	23	1	13	14	2	15	9	91
42이상(上)	9	24	2	9	20	5	40	23	132
계	33	68	4	38	38	10	71	38	300

<표 9>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일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3.055	3	1.018	1.539
집단내	195.861	296	.662	
전체	198.917	299		

중, 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역할 정체감 집단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을 측정하여 그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또한,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성별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제 1.5 수준(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의 변화 단계)이 가장 많았으며(49.7%), 다음으로 제 2 수준(책임감과 자기 희생의 단계)이 많았으며(44.0%), 그 다음으로 제 1 수준(자기 중심적 단계)이 많았다(5.7%). 제 2.5 수준(선행에서 관계에 대한 진실성의 변화)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0.7%). 그리고 제 3 수준(배려의 윤리)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제 1.5 수준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국외 연구(Söchting, Skoe, & Marcia, 1994)와 일치한다. 하지

만 Söchting, Skoe와 Marcia(1994)의 연구에서는 제 2.5 수준과 제 3 수준이 13.3%인 반면, 본 연구에서 제 3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 2.5 수준은 0.7%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이 아직 미숙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배려지향적 도덕성을 측정한 연구(곽경화와 정옥분, 2000)에서는 제 2 수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이 아직 미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 1.5 수준(이기심에서 책임감으로의 변화)이 많이 나타난 것은 우리 나라의 공동체 의식과 인정을 중시하던 전통 사회 가치관이 청소년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청소년 비행, 폭력, 패륜, 집단따돌림 등의 실태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정의지향적 도덕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본 결과, 후인습적 수준의 비율을 상, 중,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P(%)점수가 상 집단(42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분포(44.0%)를 나타냈으며, 다음은 중 집단(28~41점 사이)인 경우가 많았고(30.3%), 하 집단(27점 이하)이 가장 적게(25.7%)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후인습적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는 P(%)점수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은

순차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상 집단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특히 상 집단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두 배의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Kohlberg의 이론적 배경에 입각한 DIT는 성차가 없다는 Rest(1979)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며, 정의지향의 도덕성은 남성에 유리하다는 Gilligan의 주장과도 상반된 결과이다.

Gilligan은 Kohlberg의 이론과 방법론에 결합과 편견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성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정의의 도덕성에 상호 보완되는 배려의 도덕성은 도덕적 성숙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남녀 모두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정의의 도덕성과 배려의 도덕성을 함께 통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병춘, 1999). 따라서 이성과 감성, 정의와 배려, 권리와 책임의 도덕성을 함께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정의지향적 도덕성 발달뿐만 아니라 배려지향적 도덕성 발달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성과 성별 및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덕성에 대한 성차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과 성차에 대해 살펴보면, 남학생은 도덕성 수준이 제 1.5 수준($M=1.62$)에 근접하였고, 여학생은 제 2 수준($M=1.77$)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도덕적 지향성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Ford & Lowery, 1986; Gilligan & Attanucci, 1988; Johnston, 1988; Noddings, 1984)과 일치해 보이고 있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배려 지향성을 선호하며,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성별에 따른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을 분류해 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제 2 수준(책임감과 자기 희생의 단계)에서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Skoe와 Gooden(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성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보면, 배려지향적 상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과 다르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이성친구와의 성 관계로 빚어진 임신

문제에서 현저히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 이성친구, 태아 그리고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관한 책임을 경제적 도움이나 결혼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 이성친구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는 데 미숙하며 자기 입장을 우선시 하였다.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과 성차에 대해 살펴보면, 정의 지향의 도덕성 점수는 남학생($M=35.62$)이 여학생($M=42.65$) 보다 낮았다.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에서도 여학생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성차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DIT를 개발한 Rest(1979)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는 척도라고 규명하였으나, 그 이후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낮은 정의지향적 도덕성 수준에 머문다는 Kohlberg의 주장과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도덕성의 성차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성역할 정체감이 도덕적 지향성에서 성별 보다 설명력이 크다는 연구들(Gump, 1994; Söchting, Skoe, & Marcia, 1994)이 제시되면서 성역할 정체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과 도덕적 지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 정체감과 정의지향적 도덕성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성역할 정체감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5$).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유의미한 관계는 선행 연구들(Skoe, 1993; Skoe & Diessner, 1994; Skoe & Marcia, 1991; Söchting, 1991; Benolken, 1998; Nicholls-Goudsmid, 1997)과 일치하며, 위의 연구들에서 남성적 정체감은 자아 중심적인 단계, 여성적 정체감은 자기 희생적 단계, 그리고 양성적 정체감은 배려의 윤리 단계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려지향적 도덕성 수준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차에 관한 Söchting과 Skoe 그리고 Marcia(1994)의 연구에서는 배려 지향의 도덕성 수준은 성별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연구에서도 남성적 정체감을 가진 학생은 제 1.5 수준(14.7%)의 자아 중심적 단계를 많이 나타내었고, 여성적 정체감을 가진 학생은 제 2 수준(14.0%)의 자기 회성적 단계를 많이 나타내었다. 반면 양성성 정체감이 배려의 윤리 단계에서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Nicholls-Goudsmit(1997)은 양성적 정체감은 Gilligan의 이론에서 자신과 타인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통합되는 제 3 수준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연구에서는 양성적 정체감과 배려지향적 도덕성과의 연관은 살펴 볼 수 없었으나, 여성적 정체감은 타인지향적 도덕사고(제 2수준)와 연관되며, 남성적 정체감은 자아지향적 도덕사고(제 1수준)와 연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정의지향적 도덕성보다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비해 성역할 정체감, 부모와의 애착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Skoe과 Diessner(1994)는 도덕 판단 지향성은 자신의 교육수준과 직업, 사회 경제적 수준등이 포함되어 연구되어야 하며, 결혼이나 이혼 등 실생활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도덕성 수준은 이성교제의 경험, 가출 경험 등의 실생활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개인 특성 변인 외에도 관습,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므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배려지향적 도덕성 측정 도구상의 문제로서,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이 처음 제작한 질문지이므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추후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이나 애착, 부모자녀 관계, 친

사회적 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과 함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서 타당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의지향적 도덕성 측정도구인 한국판 DIT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기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문항 타당도 그리고 내적일치도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도덕 판단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연구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고등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의 폭넓은 일반화를 위하여, 고등학생 외에 다른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해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 참고문헌

- 곽경화, 정옥분(2000).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이동학회지*, 21(2), 213-232.
- 김광웅, 조윤정(1995). 가상적 갈등 상황과 실생활 갈등 상황에 관한 토론 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와 자녀의 도덕적 추리수준. *인간발달학회*, 2(1), 83-94.
- 김남숙, 정진경, 박광배(1997). 한국 성역할 검사의 수정점수 및 분류기준 산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77-90.
- 김선영(1987).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1997).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의식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규, 박찬주(1991). 도덕성 발달과 측정 : 인지발달론적 접근과 DIT. 서울: 성원사.
- 김지은(1996). 캐롤 길리간의 배려 윤리의 도덕적

- 정당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문미희(1990). 도덕 판단력 검사(DIT)의 문항 적절성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1986). '생활문제 설문지' (한국어판 DIT 설문지). 한국교육개발원 도덕 교육연구실.
- 박병춘(1995). 도덕교육에서의 도덕적 성숙의 근거 연구: 길리간의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춘(1999). 보살핌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명자(1994). 한국 중·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진단 및 평가(I): 사회적 규범 및 책임판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53-73.
- 심재호(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경향에 대한 분석 연구: J. R. Rest의 DIT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현(1997). 배려의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한 도덕 판단 지향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호(1993). 중·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가정 환경 변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8). 청소년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허정희(1996). 돌봄의 도덕성 이론과 기독교 교육: Carol Gilligan의 도덕성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혜경(1992). DIT검사법에 의한 한국고등학생의 도덕성 발달 수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훈(1994). 청소년들의 도덕적 행동의 억제 현상과 그 이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nolken, S. (1998). Motivational and experiential variables associated with women's use of care- or justice-based moral orientation in evaluating their own experiences of anger. Doctoral dissertation.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 Broersma Brouwer, B. J. (1999). "Stop fighting!" "There's enough for both of you." : an observational study of parents' socialization of moral orientation during sibling conflic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uelph.
- Chodorow, N. (1974).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In M. Z. Rosaldo & L. Lamphere (Eds.), *Woma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mon, W. (1988). *The moral child : Nur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조강모 역(1997). 아동 도덕발달과 열린교육. 서울: 문음사.
- DeVitis, J. L. & Rich, J. M. (1994). *The theories of moral development*. 추병완 역(1999). 도덕 발달 이론. 서울 : 백의.
- Eisenberg, N., Lennon, R., & Roth, K. (1983). Prosocial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46-855.
- Eisenberg, N., Miller, P. A., Shell, R., McNalley, S., & Shea, C. (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49-857.
- Eisenberg, N., Shell, R., Pasternack, J., Lennon, R., Beller, R. M. (1987). Prosocial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2-718.
- Eves, T. J. (1993). Integrating the care and justice perspectives : A contribution to the feminist ethic of Carol Gillig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Ford, M. R. & Lowery, C. R. (1986). Gende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 A comparison

- of the use of justice and care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777-783.
- Friedman, W., Robinson, A., & Friedman, B. (1987). Sex differences in moral judgments? A test of Gilligan's theory. *Psychology of Women's Quarterly*, 11, 37-46.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 (1988). Two moral orientations: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3), 223-237.
- Gump, L. S. (1994). The relationship of culture and gender to moral decision-mak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Diego.
- Johnston, D. K. (1985). *Two moral orientations and two problem solving strategies : Adolescent's solutions to dilemmas in f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 Kohlberg, L. (1976).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Kohlberg, L. (1981).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moral development*. Massachusetts: Clark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김민남 역(1988). 도덕발달의 심리학: 도덕단계의 본질과 타당성. 서울 : 교육과학사.
- Lyons, N. P. (1983). Two perspectives : On self, relationships,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2), 125-145.
- Massad, C. M. (1981). Sex role identity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2, 1290-1298.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uuss, R. E. (1996). *Theories of adolescence*(6th ed.). 정옥분, 윤종희, 도현심 역(1999). 청년발달의 이론. 서울 : 양서원.
- Nicholls-Goudsmid, J. (1997). To have and have not : Procreative choice and the ethic of care.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Noddings, N. (1984). *Caring :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ratt, M. W., Golding, G., & Hunter, W. J. (1984). Does morality have a gender? Sex, sex role, and moral judgment relationships across the adult lifespan. *Merrill-Palmer Quarterly*, 30(4), 321-340.
- Skoe, E. E. (1987). The development and partial validation of a care-based measure of mor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koe, E. E. & Diessner, R. (1994). Ethic of care, justice, identity, and gender : An extension and replic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0(2), 272-289.
- Skoe, E. E. & Gooden, A. (1991). Ethic of care and real-life moral dilemma content in male and female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2), 154-167.
- Skoe, E. E. & Marcia, J. E. (1991). A measure of care-based morality and its relation to ego identity. *Merrill-Palmer Quarterly*, 37(2), 289-304.
- Söchting, I. (1991). *Are moral reasoning, sex role orientation and prosocial behavior linked?* Unpublished master thesis, Simon Fraser University, Burnaby, BC.
- Söchting, I. (1996). Ethic of care and its relationship to attachment, object relations and social cognition.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Söchting, I., Skoe, E. E., & Marcia, J. E. (1994). Care-oriented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 A question of gender or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s, 31*, 131-147.
- Walker, L. J. (1984).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 677-691.
- Walker, L. J. (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
- Yussen, S. R. (1977). Characteristics of moral dilemmas written by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3*, 162-163.